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날 때부터 좌악에 빠져있는 우리 인성을
에게 함없는 은혜를 베푸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시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세상 살 동안 하나
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
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기
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안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44호 2011년 7월 30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바울서신, 그 자체로 해석돼야!

CT, 논란의 중심 바울의 '새 관점'에 대한 복음주의진영의 비판 제기

1980년대 신학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불리는 '새 관점의 바울 연구' (the New Perspective on Paul, 이후 새 관점)가 등장했다. 새 관점은 말 그대로 유대교에 대한 바울의 기존 해석을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다.

특히 '이신칭의'를 구속사적 관점이 아닌 교회론적 혹은 사회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새 관점은 샌더스(E.P. Sanders), 던(James D.G. Dunn), 라이트(N.T. Wright)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 세 사람은 특히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이신칭의 교리는 16세기 교회의 상황을 바울 당대의 상황으로 가져가서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하는 새 관점의 일부 주장에 따르면 바울의 칭의는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인간을 죄와 죽음과 어두움의 세력에서 구원하신다는 구원론적 주제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교회론적, 에큐메니컬 주제라는 것이다.

새 관점의 유대교 재구성은 물론 이신칭의 및 율법과 율법의 행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공동체적, 수평적 관점에서 머물고만 있지, 전통적인 개인적, 수직적 그리고 구원론적 관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거의 30년 동안 새로운 관점이 신약성경 연구 분야에 있어 1세기 당시 유대교 연구 지평을 확장시킨 점을 인정하지만, 새로운 관점을 시도하고 있는 학자들의 가정, 즉 자신들이 발견한 유대교의 특성에 따라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를 '구원론이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가'로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복음주의 진영은 반격을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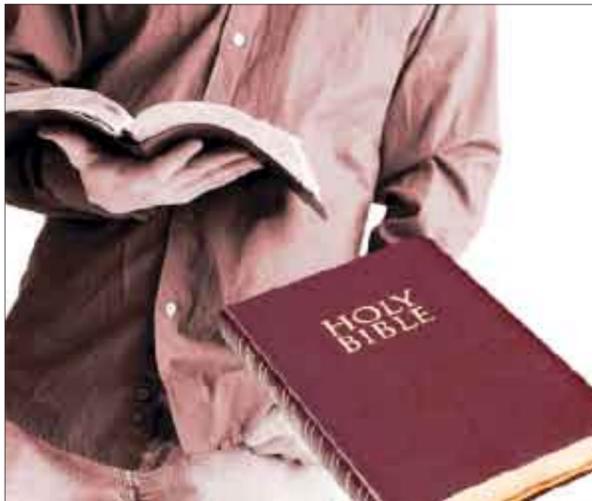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는 새로운 관점의 쟁점과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사도 바울을 성경에 그려진 그대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바울을 있는 그대로 즉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라고 제시한다(The Paul We Think We Know: How his 21st-century evangelical makeover distorts the New Testament reality).

E.P. 샌더스는 1977년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공로를 쌓아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율법주의적 종교'(Legalism)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적인 언약백성의 선택과 율법을 통한 언약백성의 의무를 강조하는 '언약적 율법주의'(Covenantal Nomism)'다'라고 주장했다.

즉, 샌더스는 기존의 해석과 달리 1세기 유대교는 의와 구원의 근거

를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에 두는 '은혜의 종교'이며,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은 언약백성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닌 이미 주어진 언약백성의 신분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언약적 율법주의'에 따라 유대교 이해에 대한 바울의 신학을 새롭게 해석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로마서의 중심주제는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복음주의 진영은 사도바울의 구원론 이신칭의에 대한 '새관점'이 오류가 있다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혹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구원론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어떻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사회적이고 공동체적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샌더스가 유대교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주장했다면, 던(Dunn)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울의 이신칭의 교훈과 율법 및 율법의 행위에 대해 재해석했다. 던에 따르면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 자체를 비판하지 않았으며,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성을 방해하는 율법의 사회적 기능을 비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던의 주장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울의 말은 율법이 의와 구원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샌더스의 유대교 재구성은 물론, 율법 및 율법의 행위에 대한 던의 사회학적인 해석에 같은 의견을 보인 라이트(N.T. Wright)는 현재 복음주의 진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하지만 라이트는 두 사람보다 한결음 더 나아가 구원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믿음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했다.

(3면으로 계속)

사 고

아이폰 용 앱 출시 인터넷 전자신문 오픈

본지가 7월부터 애독자 여러분에게
2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폰 용 앱 출시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아이폰 용 앱을 출시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치를 이용해서 앱을 다운로드 하면 언제 어디서나 미주크리스천신문에서 제공하는 모든 뉴스와 칼럼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미주 내 등록된 교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신문 오픈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인터넷 전자신문을 오픈했습니다. 본지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PDF 지면보기를 누르시면 매주 발행되는 신문을 원문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바른 선교'를 사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서비스를 계기로 애독자여러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앙증진과 하나님나라 확장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2면
자원봉사, 예수그리스도 제자 책임의 하나



3면
바이블칼럼 나온진 목사 (라스베가스 한인연합감리교회)



7면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황의영 목사(브라질새소망교회 담임)



13면
브라질 동북부 베르남부고 선교여행기(4) 신숙자 선교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Scholarship 을 지급함)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1년 가을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학			
부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학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 5 명함판 사진(2"×2")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 부 처 : 본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1년 9월 2일(금) 오후 6시
- 3 입 학 시 험 : 2011년 9월 10일(토) 오전 11시, 면접 : 오후 2시
- 4 영 성 훈 련 : 2011년 9월 12일(월) - 9월 14일(수) 오후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 감 / 교 부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 장 장 영 춘 박사

시론

여름 휴가에 대한 한 생각



원종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많은 미국인들이 일년 열심히 일하고 며칠 기분 좋게 보낸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심지어 며칠간의 여름휴가 때문에 일년을 산다는 사람도 있다. 매스컴에 등장하는 여름철 이동인구나 경제활동규모는 이를 더욱 실감나게 한다. 그만큼 여름휴가가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일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농경사회와 달리 지금은 여름휴가가 생활화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아마도 그림의 떡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지런한 우리 한인들에게 휴가는 몇 년에 한 번 있는 가족 행사의 부록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휴가에 대한 이해 역시 왜곡되기 쉬우며 그 시각으로 자타의 휴가를 보는 것 같아 조심스러울 때가 있다.

방학, 휴가를 뜻하는 Vacation 단어는 '비우다' 혹은 '떠나다'를 의미한다. 빈방 있다고 불리는 시골 모델의 비어있는 Vacancy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진공청소기 Vacuum도 같은 어원에서 비롯되었다. 어원적인 의미로 볼 때 휴가는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생긴 것들을 비우는 것이다. 그것이 삶과 일에서 생긴 스트레스 같은 부담감일 수 있고 일상의 대인관계에서 생긴 많은 생채기일 수 있으며 지나치게 빠른 세상에 적응하고자 숨가쁘게 달려온 기형의 정서일 수 있다. 혹은 남모르는 자장이나 리더의 외로움일 수 있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수 있으며 신체 한 부분에서 느껴지는 고통한 통증을 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비워야 하고 떠나야 한다. 아니, 비우기 위해 떠나야 한다. 늘 있는 자리에서는 일상적 삶의 회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회전속도로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울 수 없으니 일상의 다른 속도를 만들어내는 시공간을 찾아 잠시 떠나는 것이다.

휴가는 또한 '채우기 위해 비우는 시간'이다.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비우는 것이 아니고 앞날을 다시 걷기 위해 지난날을 비우는 것이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으니 결국 휴가는 나를 채우기 위해 나를 비우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까지 차오르는 인생에 대한 막대한 감격, 지금까지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앞날에 대한 소망 하나하나 짊어지며 세워보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그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목숨보다 귀하게 다시 사랑할 수 있으며 늘 해오던 일이라도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자세들로 채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닌다. 하지만 비우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만 하면 이것은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잿빛 혼돈만 있을 뿐이다. 혹은 계속 비우기만 할 뿐 채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비워야 할 것들만 가득 차게 되거나 빈 공허함으로 방향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전진이란 찾아보기 어려우며 명분 있는 안주가 최선이다.

잘 놀기 위해 떠난다 잘 쉬기 위해 가든 휴가는 비우고 채워야 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물론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비우고 채울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의 휴가를 함부로 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휴가는 이외에 좀 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식의 훈련'이라는 점이다. 인생과 사역의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훈련'이라는 사실이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심령의 부흥(re-vival)과 사령의 갱신(re-newal)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주는 유익으로 나타나야 한다. 간혹 휴가 가는 사람은 죄인이고 휴가가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이원론적인 그릇된 시각이 있는 것 같다. 목회자 사이에서도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다.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 있다. 휴가 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휴가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적극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어찌 일년에 한번 가는 휴가뿐이겠는가? 필요하다면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런 의미의 시간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기를 살피며 가족을 새롭게 하고 삶과 일에 대한 새로운 의욕과 자세를 가다듬으며, 그래서 교회에 크게 유익한 시간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휴가/쉼/놀이 된 것이다. 7월이 다 가는 때, 그것도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다는 이 때 휴가에 대하여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휴가가 어느 의미에서 사람이 사람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울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시간 중의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예수그리스도 제자 책임의 하나

공동체의 아름다운 이름...복음전파 위한 효율적 매개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사회를 만들어 그 속에서 서로 돕고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면서 인종이나 계급, 성별, 학력, 직업,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자원봉사의 출발점이다.

자원봉사의 어원은 '자유의지'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볼런티스(Voluntas)에서 유래했으며, 영어로는 자원봉사 활동이 지니고 있는 정신을 발문타리즘(Voluntarism), 자원봉사자를 발런티어(Volunteer)라고 부른다. 즉 자원봉사란 자발적인 의지로 남을 돕는 것을 말한다.

특히 미국에서 '자원봉사'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건국 당시부터 신대륙을 찾은 미국인들은 공공의 선이나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간섭이나 어떠한 경제적인 이권이나 소득을 생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나 섬김이 미국을 살찌우게 하는 요소이기에, "제 3부문"(the 3rd sector), "독립 부문"(the independent sector) 또는 "중재 구조들"(mediating structures)이나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향후 미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되고 있다. Volunteers of America(www.vo.org) 참조.

'자원봉사'는 '자원'과 '봉사'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자원[自願]은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여 나섬'이라는 뜻이고, 봉사[奉仕]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을 의미한다.

'자원봉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volunteering'이 쓰이는데, 라틴어 'voluntas'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단어에는 자발적인 의지와 욕망이 내포돼 있다. 자발적 활

적 보상과 관련된 것으로, 자원봉사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 등의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의 '계획성' 및 '지속성'은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을 의미한다.

최근에 와서는 자원봉사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회행동'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자원봉사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오히려 자신이 얻게 되는 것이 더 많다. 또한 자원봉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활동이 아니며, 착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의 하나인 것이다.

여유가 있든 없든 자신의 현재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가깝고도 쉬운

활동은 기업 시민정신(Corporate Citizenship)과 연결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종전에는 기업이 NGO들과 협력할 때, 주로 기부금으로 참여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업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한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들어 제록스, 벨 텔레폰 등과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2003년 보스턴 대학의 141개 기업

자발성, 이타성, 무보수성, 계획성, 지속성 특성 지녀 교회내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이자 교회사랑 동기 제공

동(voluntary activity), 자발적 일(voluntary work), 또는 자발적 행동(voluntary action)이라는 단어도 자원봉사의 의미로 함께 쓰인다.

이를 종합해보면, 자원봉사란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UN 자원봉사조직인 UNV는 자원봉사를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웃과 사회의 안녕을 위해 기여하는 비영리, 무보수, 비상근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좀 더 자세하게 자원봉사에 대해 알아보면 자원봉사는 자발성, 이타성, 무보수성, 계획성 및 지속성의 특성을 가진다.

'자발성'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타성'은 남을 존중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의식에 바탕을 두었음을 뜻한다. '무보수성'은 경제

이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으며, 교회에서는 복음 전파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자원봉사는 어떤 대가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한 효율적인 매개체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교회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자원봉사를 나오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생각한다. 자기희생이며 무조건 베푸는 것이라거나, 착하고 동정심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시간이 많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하는 일이 전부라는 식으로 심한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다.

자원봉사 활동은 얼마든지 있다. 관심이 부족하고 열정이 부족할 뿐이다. 매우 주관만 관심 있게 살펴봐도 자신이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편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도 윤리경영, 기업문화 정착 등을 이유로 자원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자원봉사

조사에서는 이들 중 85%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도입해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춘지 선정 50대 기업 중 94%가 자사 홈페이지에 기업 임직원들의 자원봉사를 언급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기업은 애사심을 키우고, 종업원 스스로의 자부심을 함양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213) 383-0200 (대) / (323) 665-0009 (광고국) Fax: (213) 380-5951 (편집국) /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 /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 / (718) 886-0074 (대)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SINCE 1986 www.midwest.edu

2011 Fall Semester
신·편입생 모집

가을학기 : 2011년 8월22일~12월2일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TESOL MASTER of Religio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urch Music, Athletic Mission	MASTER of Divinity M.Div. D.Min with Concentration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Social Work, Church Music,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Christian Leadership
---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 원격 교육 강의 :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직장을 떠나지 않고 학위취득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혹은 J-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 교육)
3. 수시 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 E-mail: usa@midwest.edu

제4회 청운교회 장학생 선발

청운교회에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우리 자녀들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 대상 : High School Senior, College, Graduate School
- 자격 : 일반 장학금 :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목회 장학금 : 선교사, 목회자 가정의 자녀 및 신학생

제출서류

1. 신청서 - 아래 E-mail로 신청서 양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gvc.scholarship@gmail.com
2. 본인 예세이 (Letter size 2장 이하)
3. 증빙서류

일반 장학금 : 성적증명서, 교회목사 또는 학교 담임교사 추천서
목회 장학금 : 성적증명서, 섬기는 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출석교회 주보

수여금액 : 대학생(\$1,000), 고등학생(\$500)
접수마감 : **2011년 8월10일** (이 날 소인까지만 유효함)
우편접수 : THE GREAT VISION CHURCH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 장학금 수여식은 2011년 8월 말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 심사결과는 8월 20일까지 개별통보 해 드리겠습니다.
- 심사결과에 대한 문의는 사절하며, 접수한 서류는 다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청운교회
The Great Vision Church (GRC)

파트타임 교육전도사 청빙

지원자격

청소년 선교에 열정이 있으며 신학 공부를 한 분
영어로 설교와 회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교회 홈페이지 사이트를 참조
http://www.kumcabq.com/YouthDirectorJobDescription.pdf

제출서류

이력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목사 추천서 2부
평신도 추천서 1부
최근 6개월 내 영어 설교 1회본(Audio or Video CD)

제출방법

Attention : Pastor Kee Cheon Kim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마감: 2011년 8월 31일

문의 : 김기천 목사 TEL. 505-803-7716, abqkee@gmail.com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

바울서신, 그 자체로 해석돼야

(1면에서 계속)

라이트의 주장에 따르면 바울의 칭의 교리는 구원론적 주제가 아닌 교회론적 주제다. 즉, 칭의는 개인의 구원교리가 아닌 언약백성인자 아니지를 말해주는 교회론적 주제라는 것이다. 결국 라이트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교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새 관점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상징하는 특정 요소들(할례, 음식규정, 절기규정)이 자연스레 두드러지게 됐다.

4.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선택과 자비에 관한 유대적 신념을 긍정하면서도 또한 반대하고 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불변한 것으로 긍정하면서도 그는 구원의 가능성을 유대인들에게만 국한하는 데는 반대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진술은 유대 공동체의 일원만이 참된 의인이라는 신념을 반박하는 것이고, 칭의

학자들은 종종 바울의 칭의론이 구원론적 문맥에서 제시되고 있음을 부인하고, 이를 그저 "사회학적" 혹은 "교회론적" 차원으로만 제한하려 한다.

칭의는 분명히 구원론적 개념이다. 그리고 문맥은 칭의의 범위가 아니라 칭의의 조건이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칭의의 길로 제시했다.

복음주의 진영은 바울 당대의 유대교가 확립적으로 율법주의가 아닌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전제 아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새롭게 재해석하려고 하는 새 관점의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한다.

다시 말해서, 1세기의 유대교를 전폭적으로 율법주의로 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바울서신을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겠지만, 1세기의 유대교를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전제 아래 바울서신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는 더욱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바울의 서신을 접근할 때 율법주의든 언약적 율법주의든 어떤 고정적인 전제를 가지고, 그러한 전제 아래 바울의 본문을 성급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안된다. 결국 주후 1세기의 비기독교적 유대문헌들이 복음서를 위시해 바울서신의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복음서나 바울서신 해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바울서신은 어디까지나 먼저 바울 서신 그 자체로 해석되어야 한다.

결론으로, 바울 연구에 있어 새로운 관점은 1세기 유대교 연구에 있어 그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문맥은 유대 문헌 분석에만 근거해 모호한 구원론적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말미암아 종교 개혁자들이 재전명한 전통적인 구원론을 배격하는 것은 교회공동체에 무관한 상아탑에서의 이론일 뿐이다.

실제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어야만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포함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를 얻는 것이다.

가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진술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신념을 주장하는 것이다.

5. 바울신학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시대착오적인 신학적 전제를 바울의 텍스트에 주입한 탓이다.

바울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전제 없이 역사비평적 방법을 충실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새 관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울의 칭의론이 드러내는 사회학적 차원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점이다. 부분적으로 이는 초기 유대교가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인식의 도움을 받은 것이지만, 신학적 해명으로서 새 관점이 갖는 한계를 잘 보여주는 현상의 하나가 바울 칭의론의 구원론적 차원을 평가절하하려는 시도들이다.



1. 믿음과 행위의 이항대립에 근거한 개신교적 바울해석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칭의 혹은 구원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기독교의 관점과 구원을 행위의 산물로 간주하는 유대교와의 대립은 바울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다.

2. AD70년 이전의 유대교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에 의한 것이었고, 율법의 순종이 이 은혜 언약의 틀 속에서 이해됐다. 율법은 "getting in"을 위한 것이 아니라, "staying in"을 위한 것이었다.

3. 헬라문화 속의 소수그룹으로서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이런 상황

(2면에서 계속)

기업 내에는 건전한 조직문화가 만들어지고,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교회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아동, 장애인, 노인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 교통, 환경, 범죄, 교육 문제 등의 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행동도 자원봉사활동에 포함된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싶다면 이웃사랑선교부나 호스피스를 비롯한 담당 부서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교인들은 환경단

체나 병원, 양로병원 등 그 봉사 대상은 언제나 열려 있기에, 자신에게 맞는 자원봉사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방학이 다가오면, 환경이나 봉사 NGO 단체마다 자원봉사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한다. 대학 입시 원서에 도움이 되는 자원봉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대학 입학 원서에는 반드시 "과외활동"란에 어떠한 봉사를 했고, 어떠한 상을 받았는지를 기록해야만 하기에, "올며겨자먹기"식으로 문의를 하게 된다.

결론으로, 자원봉사는 사회봉사적 의미와 함께 교육적인 의미도 동시에

포함돼 있다. 자신의 사회적인 존재 가치를 깨닫고, 봉사경험을 통해 인격적인 성장과 잠재능력을 실현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청소년들은 자라나는 세대로 미래를 책임질 이들이다. 자신의 소속된 사회의 특성을 직접 경험하고,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자원봉사가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 교육담당자들은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들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야만 한다.

바이블 칼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은진 목사

라스베가스 한인연합감리교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갈1:1-3).

"나는 가수다"라는 TV 프로가 있다. 나는 이 프로를 우연히 보고 난 후 '나 가수'에 매료되었다. 사실 내가 잘 모르는 가수들이지만, 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실력 있는 가수들이 존재해 있었다는 것이 기뻐다.

최근 어떤 여자 가수가 탈락이 되었다. 그러면서 '나 가수'는 이러한 말을 했다. "나는 '나 가수'에 출연 이후 가수로서의 책임감이 더 생겼다. 그리고 내 이기적인 음악생활을 뒤돌아본 기회가 됐다"는 것이다. 이 여자 가수는 음악대학교 수의 직분도 갖고 있었다. 팬들뿐 아니라 가르치는 제자들도 '나 가수'라는 경연대회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탈락하고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모습에 마음이 쫘아졌다. 재능과 실력과 인격까지 갖추고 있는 진정한 가수였던 것이다.

프로가수라 해서 항상 몸과 목의 상태가 좋은 것이 아니었다. 감기에 걸려 있을 때도 있고 전날 공연이 있어서 이미 목이 잠긴 상태로 공연에 참석하는 가수도 있었다. 한편, 집안의 어려운 환경 속에 가수활동을 거의 중단했던 친구도 있었고, 얼굴 없는 가수로서 활동한 친구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이 무대에 서서 노래할 때 그러한 한이 있어서 일까? 선정된 곡을 일주일간 준비하고 나서 최선을 다하여 부르는 모습이 짜릿했다. 좀 전까지도 목이 쉬어 있는 상태였고, 감기가 들어 기침을 하고 있었는데 무대에 서서는 혼신을 다하여 노래를 새롭게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참여하는 가수마다 저마다의 창법으로 감동을 주는 무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부러웠다.

그래서 생각해봤다. 나는 나로서 '나는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 나는 항상 말한다. 나는 부족한 목사라고. 나에게 있어선 '부족한'이라는 수식어가 목사 앞에 들어간다. '나는 부족한 목사입니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한다. 이는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는 아니다. 아직 나에게 목사로서 만족을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남보다 큰 목회를 못해서 그렇고, 아직도 남의 교회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도 그렇다. 그리고 나의 봉급도 절

반으로 줄어들었다. 사실 나는 나의 봉급을 온전히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아이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지도 못하였다. 저들이 저들의 길을 간다면서 대학진학을 포기까지 했다. 어쩌면 무능한 아빠 때문에 저들이 선택한 길일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목사면서 또한 부족한 아빠이다.

그러나 또 생각해봤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목사로 불러 세워주셨다고 말이다.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 멋대로 엉뚱한 길로 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고 지금이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겨우 작은 이민교회의 목사를 하라고 불러 세우셨다 말인가! 왜, 나는 대형교회의 그릇이 못된단 말인가! 사실 나는 대형교회의 비전을 갖고 목회를 시작했었다.

그런데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대형교회의 목사가 부럽지 않았다. 저들이 얼마나 힘들까? 저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도리어 동정이 간다. 지금 내가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다. 나는 나대로 작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힘이 들고, 저들은 저들대로 큰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힘든 일이 보다 많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수들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에 나와 경연하는 것에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저들이 자부심을 갖고 명예로 앞듯이, 우리 목사들도 큰 교회목사, 작은 교회 목사 할 것 없이 내가 목사로서 목회자의 길에 있어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책임감 있는 목회를 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목회에 자긍심을 갖고 삶에 기쁨이 되었으면 한다. 어찌 목사들뿐이겠는가! 우리의 성도들도 같은 뜻을 가졌으면 한다.

저들이 가수로서 사는 것에 자부심과 보람을 얻으며 명예로 앞듯이, 우리는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보람을 얻는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든지, 나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어야겠다. 우리는 성도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나 삶을 버려야 할 것이다. 또한 몸이 좀 피곤하고 목이 좀 아파도 주일 성수하는 성도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야겠다. 특히 목사로서,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과 책임에 있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가계를 운영하던 직장에 다니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이다. 그래서 거룩한 모습만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에 있어 항상 겸손하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내가 소홀하여 욕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에 대해 얼마나 민망해 하실까 생각해보자.

특히, 라스베가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신앙생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가 이제는 '나는 목사',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성도인 것을 돌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특별한 은혜요 축복으로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책임감 있는 신앙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겠다. 더불어 이 특수한 라스베가스라는 지역사회에 있어 복음화, 성서화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을 부탁드린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 2011 가을학기 신(편)입생모집

Shepherd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는 2011년 2월, ATS 평회원 자격을 위한 Candidacy Status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제 세계적 명성의 신학자들과 더불어 자신있게 공부하십시오

우안 카를로스 오르티스 박사

브레노스 아이레스의 성경 운동의 추방이후 20세기의 성경적 제자론의 창시자이다. 영성과 교외영성, 제자론을 주제로 전세계에 나가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전세계 스페니쉬어권 그의 설교가 TV를 통하여 방영되었으며, 그의 책 '제자론'은 출판 이후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의 20여권의 책이 한국어로 출판되었으며 현재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성, 교외영성, 제자도 분야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

영적전쟁과 내적자유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물론 영국, 호주, 스위스, 독일, 태국, 대만 등 여러 세계 각지에서 내적 자유 세미나를 인도하였다. 저서로는 '깊은 영성을 자유이기는 여인님', '사적인 영을 대적하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능력 기독교' 등의 책을 각국어로 출판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내적자유를 강의 하고있다

이로써, 하버드신학대학, 예일신학대학, 프린스턴신학대학, 풀러신학대학, 탈벗신학대학, APU신학대학원 등 미국의 우수 신학대학들과 학점교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TS는 미 고등교육인증위원회(CHEA)와 미 문교성 (USDE)으로부터 공인 승인된 미 연방 약력인증 기관입니다.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본교 MDiv 및 DMin 학위와 학점은 미국 모든 신학교에서 인정됩니다.

쉐퍼드 신학대학(원)은 신학과 영성, 성경과 영성의 균형있는 교육을 통하여 "For the Lord, To the World"의 기지로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통역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일정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로 영어와 학위프로그램 이수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학위	프로그램	학점
학사	B.A.B.S.	128
석사	M.Div	96
박사	D.Min	42

입학문의전화
213.481.1313
신학대학 교무과
김은의 계장

쉐퍼드대학교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info @ shepherduniversity.edu
www.shepherduniversity.edu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골든러쉬와 아주사 부흥운동”

세계 경제의 심각성과 미국 경제의 악화로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금으로 투자를 대신 하는 풍조에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은 예나 지금이나 부의 척도이며,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아 왔습니다. 한 때 금을 캐려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어 ‘골든러쉬’를 이루었던 때도 있습니다. 각국에서 혹은 국내 각처에서 목숨을 걸고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골든러쉬가 일

어나게 된 때는 1790년대 브라질의 금광들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풍부하게 유입되던 금의 양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독립전쟁으로 약20년 동안 생산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편승하여 세계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면서 화폐로서 또 화폐의 기준으로서 금의 역할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면서 새로운 금 공급원의

발견이 절실하였기 때문입니다.

19세기 골든러쉬는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어, 1859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에까지 번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골든러쉬는 1848년 존 서터(Johann Sutter)란 사람이 제재소에서 작은 금조각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미디어가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금 발견에 대한 소식은 늦게 미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존 서터가 금을 발견한지 수개월이 지난 후 골든러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는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예전에 열 배 이상 늘어난 약 25만 명이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골든러쉬로 인해 전 세계인이 캘리포니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항간에 소문으로는 두 달만 가면 20년 치 월급을 벌 수 있다하여 목숨을 건 사투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에 금이 발견되면 왕이나 정부자가 소유자가 되었지만 캘리포니아 골든러쉬는 누구든지 금을 찾아내면 하면 장소나 양에 상관없이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하여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곳 캘리포니아로 모여들

게 했습니다. 그러나 골든러쉬로 인해 부자가 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뿐 많은 부작옹과 허영, 방탕한 생활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851년에 캘리포니아의 금생산량은 85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한 해의 금생산량이 전체 연방예산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1853년에는 생산량이 100여 톤으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냇물이나 강에서 채취할 수 있는 금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장구할 것만 같았던 골든러쉬도 겨우 4년 밖에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아주사 계곡에서 금을 채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과 더불어 “최근 아주사 ‘이스트 포크’ 계곡이 새로운 ‘골든러쉬’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1600달러를 돌파하면서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평일 오전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낭에 금 캐는 도구를 넣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산길에 배낭을 짊어진 사람들로 붐볐으며 그들의 행색은 단순

히 등산을 하기 위함이 아닌 금을 캐고자 양동이와 삽을 주렁주렁 매달고 산을 오르고 있었으며 계곡에 이르자 20여 명의 금캐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주사 계곡에 다시 모여드는 사람들 물론 과거와는 달리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아닌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위해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을 열망하는 그들의 마음은 예나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집니다. “아주사라는 이름을 대하니 ‘아주사의 부흥운동’이 생각납니다. 아주사의 부흥운동은 노예후손 시무어 목사에 의해 이곳 LA에서 일어난 초대교회 이후 세계를 변화시킨 부흥운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100년 전인 1906년 4월9일 다운타운의 작고 초라한 가정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멀지 않은 노스 보니브레아(N. Bonnie Brae St.) 216번지에서 예배를 드리던 신자들에게 방언이 터지면서 이곳 LA를 시작으로 하여 곧 뉴욕과 시카고 미주 전역을 거쳐 아시아와 유럽으로 번지게 되는 역사에 남을 부흥운동으로 기

록되고 있습니다. 후에 부흥의 불길은 차고 넘쳐서 보다 넓은 장소인 아주사 312번지에 있는 창고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아주사 부흥운동의 일화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치유사역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 작성한 LA 타임스의 기사가 소아마비를 가장하여 부흥회에 참석했고 기도를 요구하자 시무어 목사님은 “그대로 이루어질지이다”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외쳤고 그 기저는 그 자리에서 소아마비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일로 인해 기저는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사 부흥운동은 약 3년 동안 계속되며 오늘날 오순절계통 교회의 초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흥의 물결로 출렁거렸던 아주사 312번지는 일본인 상점과 건물이 들어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아주사 부흥운동이 그저 전설처럼 전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갈수록 메마른 이 LA 땅에 새로운 ‘골든러쉬’를 꿈꾸듯 ‘아주사의 부흥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푸/ 른/ 초/ 장

박은일 목사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고,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으나, 내 생각과 내 의지에 의존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이사야 41:8절에 보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너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였었습니다. 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의탁만하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생활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

택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자적이 없는 자들이지만, 사명이 있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

은 사람입니다. 받은 축복을 계속 유지하고 또 더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

다. 사랑하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법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만 받아드리는 환경에 따라 그 씨앗의 결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말씀은 생명인데, 닫힌 마음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의 역사도 없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결실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밥 버포드가 쓴 “하프타임”이란 책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100배의 믿음, 100배의 건강, 100배의 물질, 100배의 은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덤불에 떨어져 기운이 막히는 씨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씨들은 다 열매를 맺는 잠재력을 가졌으나 발해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만세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기뻐하며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곱하기 100” 100배의 결실, 100배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축원합니다.

“곱하기 100” 신명기 11장 13-14절

남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보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벗이란, 계속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여 주십니다.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축복의 비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

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는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받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종을 세우셔서 말씀하실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뿌리는 씨가 길, 가시덤불, 돌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뿌려지게 됩니다. 씨앗은 다 생명이 있습니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구든 원한다면 자신의 비문에 어떻게 쓸 것인지 스스로 미리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밥 버포드는 나는 내 비문에 쓸 말을 이미 정해 놓았다고 하면서 그것은 “x 100”이라고 하였습니다. X 100이란 100배를 뜻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 “좋은 이미지로, 좋은 땅에 뿌려져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로 기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저도 하나님



제 5 회 암환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2011년 8월 6일 오후(토요일) 8시
퀸즈장로교회 (장영춘 목사)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주관: 새생명 선교회(암환자)
협찬: 퀸즈장로교회
미 암협회 아시아지부
강혜신 내과
성갑재 외과 (유방암 전문)
정연희 내과, 암
정인국 소아과
명준모 위장 간내과
한원희 알리지

티켓문의: 718.886.4040
646.247.1568



지휘자 양재원



뉴욕퀸사신교회합창단



소프라노 이철하



메조소프라노 이은주



베이스 김명지



테너 소영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지난 주간은 엄청난 폭염이 휩쓸었다. 미국사람들은 90도 이상 더위가 며칠씩 계속되는 찜통 무더위를 'Heat wave'라고 한다. 지금까지 13여 년동안 전 세계를 휩쓴 또 하나의 열풍이 있다. 그야말로 온 세계는 '해리포터 wave' 속에 있었다.

해리포터의 소설의 작가인 J. K. 롤링(Rowling)이 쓴 7권의 소설과 그것들을 최첨단의 그래픽으로 환상의 세계를 화면에 실은 8편의 영화는 세계의 문학계와 영화계에 큰 충격과 열풍을 몰고 왔다. 이 시리즈는 '스타워즈'와 '007 제임스 본드'를 제치고 사상 최고의 성공적인 영화시리즈가 되었다. 지금까지 판매부수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할 정도로 30개국 언어로 130개국에서 번역하여 출판된 시리즈는 판매 4억5천만

의 구성은 루이스의 에세이뿐 아니라, 플라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근대의 스타워즈와 스타트랙에서도 나타나 는 문학적인 구성법이라고 한다.

해리포터 시리즈 첫 번째 책의 출간 이래 수많은 뜨거운 논쟁들을 불러 일으켰다. 비록 해리포터 시리즈가 종교적인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라든가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해리포터 시리즈에 대해 단호하고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반기독교적이라는 입장은 분명하다. 롤링이 소설의 도구로 사용하는 마법사, 마녀와 마술, 점성술, 뉴에이지와 관계된 이러한 행동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금하는 것들이다. 레위기(19:26, 19:31)와 신명기(18:10-11)에서 분명하게 금하는 것들이 소설 속에서 나오

고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도들"에는 기독교적인 알레고리인 죽음 후의 부활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롤링은 "해리 부모님의 무덤 비석에 적혀 있는 두 인용구절이 내가 해리포터 전 시리즈에서 말하고자 했던 주제를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리포터 연구가인 존 그랭거는 해리포터의 이름에서 불어시 발음으로 보면 '포터의 상속자'라는 뜻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포터(Potter)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으로 사용했으며 기독교적 상징으로 책을 이해를 했다.

또한 상징주의 대가이며 기독교인인 존 호우튼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 중도적 입장을 취한다. 피상적이고 단순한 견해를 넘어 상상력과 신화, 마법, 그리고 세계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리포터에 접근한다. 해리포터의 세계가 기독교 복음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면서 기독교의 독특성을 전달한다.

저자인 롤링의 이야기를 다 수용하더라도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나니아

해피 포터 열풍과 성경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권을 돌파했고, 영화수입은 60억불이 넘는다. 전 세계적인 판타지를 통한 문화적 쓰나미 현상이었다.

해리포터의 판타지 문학의 비밀은 무엇인가? 문학비평가들은 롤링이 단테와 셰익스피어 그리고 다른 문학적 거장들의 주제와 상징을 사용한다. 전통적인 예술적 기교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롤링은 3가지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는데 순환기법, 마법의 드라마, 그리고 영혼의 기능들이다.

순환기법은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의 저서 "Thinking in Circles"에서 순환구조라 이름 한다. 즉 주제를 열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결론을 처음으로 되돌리는 대응의 구조이다. 성경연구자들은 대차대교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학적으로 보면 롤링의 글들은 처음과 끝이 만난다.

해리포터 연구에 힘을 쏟았던 John Granger는 이런 구도를 C.S. 루이스의 "나니아의 연대기" 그리고 J.R.R. Tolkien의 "반지의 제왕" 등의 기독교적 판타지 소설에서 따왔다고 본다. 소설은 또한 영혼의 기능들을 나타내는 3명의 친구들로 구성한다. 몸, 마음,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인물

또한 사용되어진다. 성경은 강신술(삼상1:28), 그외에도 마법의 행동들을 금하고 있다(출22:18; 미5:12; 레 20:6, 27; 왕상10:13-14). 사실 어린 이들은 모방하기를 잘하는데 이런 마술이나 주문 등을 따라하는 게임 등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책은 어두운 의 세계에 문을 여는 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정당한 근거이다.

제임스 톱슨(Focus on the Family)은 "해리포터가 비록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허구이지만 마법이나 요술을 다루는 뉴에이지 트렌드는 어린이들에게는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외에도 지난 13여년동안 세계 곳곳에서 해리포터를 반대하는 데모와 책을 불태우는 시위들도 많이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적인 반향을 얻어서 사상 최대의 흥행을 이루었다. 또한 환상 예술 전범을 재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는 종교 부를 찍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해리포터의 열풍과 문화적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여기에 반해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악의 화신인 볼더볼트와 싸워 이긴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상징들을 성경과 연결시키려고 하면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Jeffrey Weiss는 기고한 글에 주인공 해리는 부모님의 무덤을 발견하는데 그 무덤의 비석에는 "맨 마지막에 멸망할 적은 죽음이다"와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는 성경 구절이 있음을 지적한다. 바로 사망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의 고전 15:26이다. 그리고 극중 인물 덤블도어의 가족묘지에는 마6:19를 직접 인용하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려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리즈의 각권에서 이 가치를 발견한다고 주장했다.

저자인 롤링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도들"의 홍보 차 미국을 방문한 지난 7월 15일 LA에서 북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테마를 사용했다고 말할 것을 크리스천포스트도 보도했다. 강담회에서 롤링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후 그동안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 '기독교적인 주제를 표현한 것이냐는 질문이 많았지만 명확한 대답을 미뤘었다고 전했다. 그리

의 연대기나 반지의 제왕과는 달리 분명하게 쉽게 보이는 기독교 상징주의는 아니다. 더구나 그녀가 사용한 여러 가지 마법과 마술을 다른 상징주의 대가들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 금하고 있기에 호기심에 이런 세계에 접하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의 염려도 타당하다.

하지만 이미 해리포터는 세상에 만연되어 있고 자녀들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책과 영화를 접하게 된다. 무조건 금하는 것보다는 분별력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Prison Fellowship Ministry의 척 폴슨이 조언한 것처럼 "부모들이 해리포터를 통해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메시지를 가르치려면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한 개의 문화 작품을 성경공부를 하는 것처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거부할 필요도 없다. 이제 해리포터가 하나의 신드롬이 된 이 시대에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분별력 있는 조언을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SPC0316@yahoo.co.kr

Q:과거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 어거스틴과 말틴 루터가 로마서의 어떤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말씀이 성경의 무슨 구절이며 그들의 변화된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성에서 구 장로

A:종교 개혁자인 독일의 말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 생의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사로 수도원에 있으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두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죄음서의 확신이 없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부로 느끼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수도사로 로마를 방문하고 스킨라 산타 성당의 발라도 계단을 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기어오랐습니다. 무릎이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행을 함으로서 자기의 죄음서의 기쁨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기쁨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릎으로 기어오르다가 갑자기 그 전에 읽었던 롬1:17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전에도 수없이 듣고 읽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어 졌습니다. 내 행위나 고행으로가 아니라 로마서 1:17-루터, 로마서 13:13-14-어거스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는 로마서의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죄사함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이 이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의 한 말씀으로 중생의 경험을 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도"를 깨달아 그 영감과 힘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세기의 성자 어거스틴도 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한때 마니교란 사교에 심취했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 도덕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이단에 빠진 그의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32살 이었던 여름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그가 쓴 고백록이란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산란해서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서 자신이 묵고 있던 집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어느 여자와 동거생활하면서 성적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책하고 고민하며 어느 무화과 나무아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처의 한 집에서 어떤 남자아이 아니면 여자아이인 듯한 음성의 누군가가 노랫가락으로 읊조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되풀이해서 "톨레레게, 톨레 레게" "집에서 읽으라", "집에서 읽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거스틴에게 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는 신적명령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 책을 옮겨지고 펼쳤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본문은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13:13-14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전광석화처럼 어거스틴에게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사라져 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그런 충격을 체험해야 합니다.

뉴욕곰탕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맨하탄 :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6-0201

다이나믹스

교회 행사에 필요한 주문 제작 티셔츠, 배너 등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앞뒤 Two color 로고 프린트 T-shirt 50벌 이상 \$5.00
광고배너 제작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 Towel
배너도, 견도 및 각종 무술장비

Tel 516-354-8484, Fax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dynamicsworld.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www.chpress.net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www.sbm.or.kr

크리스천이 이데로 살아서는 안됩니다.
SBM이 처방을 제시합니다.

SBM의 3대 목표

1. 믿음의 신앙화 From Scripture to Faith
2. 신앙의 생활화 From Faith to Innovated Life
3. 생활의 문화화 From Innovated Life to Cultural Impact

SBM총재 왕의 영목사
서울(02)564-3191, Fax. (02)564-6933 E-mail: sbm01@hotmail.com

기독교 생활개혁운동본부 THE HEADQUARTERS OF SON SAL MOVEMENT

<월간> 미주크리스찬 다이제스트

빛과 사랑
Light & Love

발행인 권태진

51 West Overlook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883-1142
136-20 38th Ave. suite 9A Flushing, NY 11354 lightloveny@yahoo.com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 LA@chpress.net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⑤ 사택 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교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아세요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키스탄의 발키미(BALKIMI)



파키스탄의 도처에 흩어져서 큰 종족들 사이에 섞인 작은 집단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24,700명의 발키미인(Balkimi)들이다. 이들은 힌두족과 친족간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며 이 나라의 남쪽 산드주에 거주하고 있다. 발키미라고 불리는 이들의 언어는 인도-아리안어족에 속

한다. 이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삶의 모습

1947년 인도대륙의 분할은 굉장한 인구의 혼란을 가져왔다. 약 3백50만명의 힌두인과 시크인(힌두교와 이슬람이 혼합된 관습을 행한다)들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인도로 이주했고 약 5백만의 무슬림들이 인도로부터 파키스탄으로 이주했다. 이 이동은 초기에 두 나라 사이에 고통을 야기했고 후에 영토의 일부를 획득함으로써 더욱 심화했다. 발키미인들은

힌두교인이지만 파키스탄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

파키스탄 땅의 약 26%는 경작지가 가능하고 그 대부분은 관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절반이 넘는 노동력이 농업 혹은 그에 관계된 활동에 투입되고 있고 65% 이상의 사람들이 시골지역에 살고 있다. 생산증대에 대해서도 보상이 거의 없는 소작인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생산량은 저조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개혁과 누진세 제도가 도입됐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관개기술과 비료의 개선으로 밭생산량이 극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은 식량자급이 가능한 국가가 됐지만 때로는 주요산물이 부족되기도 한다.

밀이 주요작물이며 사탕수수도 널리 재배된다. 목화과 싹은 주요 수출작물이다. 가축들은 많이 있지만 육류와 우유 생산은 저조한데 이는 부적절한 사료공

급과 저질의 관리 때문이다. 염소와 양은 가장 일반적인 가축이고 소, 물소, 낙타도 사육한다.

가족의 구성은 남성에게 의해 지배되는 가부장중심제(Patriarchy)이고 대부분이 대가족으로 생활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낮으며, 여성은 가정의 잡일과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한된다. 부유한 소작농이나 지주의 가정, 도시 중산층의 가족들은 여성들을 격리(푸다, Puda) 부녀자를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관습하여 보호한다. 만일 이들이 집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베일로 얼굴을 가려야 한다. 푸다의 관습을 행하는 사람들의 집에는 집 앞쪽에 남성들의 구역(Mardana)이 있어서 방문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구역(Zawana) 안에 격리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폐를 끼치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 가난한 이들은 대개 여성들도 농장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푸다의 관습을 행하지 못한다.

사회 구조는 카스트보다는 혈연중심적이다. 베라다리(Beradari), 남성을 통해 족보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회제도이다. 남자들은 아버지의 형제들과 딸들과 결혼하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많은 집안에서 결혼은 변함없이 베라다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한 혈통의 원로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평의회를 구성하며 비갈사회에서 그 혈통을 대표한다.

신앙

파키스탄의 지배적인 종교는 이슬람이다. 이는 인구의 약 97%를 차지한다. 힌두교와 기독교는 그 다음의 소수 종교집단이다. 발키미인들은 소수파인 힌두교인이며 이들의 85%가 힌두교인이다. 파키스탄의 헌법은 그 나라를 이슬

람국가로 정의했으나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있다.

필요한 것들

성인파키스탄인 중 35%만이 읽고 쓸 줄 안다. 제도상으로는 5년간의 무료 초등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으나, 절반이 못되는 어린이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출생율과 사망율이 높다. 정부는 여성고용촉진과 가족계획을 통해 출생율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해왔으나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발키미인들에게는 아주 이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가 거의 없지만 3개의 선교단체가 이들을 목표로 사역하고 있다. 발키미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정보와 선교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슬픔 속 노르웨이 국민들, 하나님께로 발걸음

끔찍한 테러로 인한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노르웨이 국민들이 지난 주말 하나님의 해답과 위로를 찾아 교회로 향했다.



지난 22일 오슬로 정부청사와 인근의 우도야 섬에서 열리고 있던 노동당 청년 캠프에서 발생한 테러는 지금까지 총 1백여명의 희생자를 낳았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최악의 테러이자, 지난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열차 테러에 다음으로 유럽에서 발생한 가장 끔찍한 테러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테러는 그 대상을 10-20대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잔혹성을 더하고 있다.

테러 이후 처음 찾아 온 주말에 많은 노르웨이 교회들은 24시간 문을 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원하거나 이같은 비극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 위로를 얻고자 오는 사람들을 맞이했다고 현지 언론들과 외신들은 보도했다. 또한 노르웨이 전역에서는 라디오를 통해 기도 방송이 내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 기독교계는 이 연쇄테러 용의자 안데르스 베링 브레이비크를 향해 기독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연일 내놓고 있다. 특히 25일 진행된 비공개 심리와 1500쪽에 달하는 '선언서' 등에서 용의자가 기독교와 심자군운동 등을 끌어들이자 세계교회는 '기독교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브레이비크가 잘못된 기독교를 믿고 있었다는 결정적 단서는 선언서 1307쪽에 표현한 자기 정체성이다. 그는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다면 종교적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를 갖는 것을 불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문화와 사회, 도덕적 토대 안에서 기독교를 믿는다. 이것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복음연맹(WEA)은 노르웨이 테러 사건은 하나님의 선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WEA 합동총무 고든 쇼엘-로저스 박

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성명에서 "우리는 용의자가 기독교 신앙을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들을 읽고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에서 종교적 폭력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판해 왔다"며 용의자의 사고(思考)와 행동은 기독교인의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WEA 지역 연맹인 유럽복음연맹(EAE) 총무 니에크 트래프 박사는 "인간이 이같은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에 공포를 느낀다"며 "이러한 폭력은 철저한 악의 징후로 간주되어야만 하며, 하나님의 선과 정의에는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무슬림 국가도 "이슬람 극단주의 걱정스럽다"

파키스탄인은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한 경우가 94%인 반면 '파키스탄인'이라고 한 경우는 3%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인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한 비율과 '미국인'이라고 한 비율이 46%로 같았다. 무슬림은 자신의 정체성을 주로 종교에서 찾는 반면, 기독교인은 국적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종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서구와 중동, 아시아 국가 국민들의 주요 종교 의식조사 결과다.

서구 국가의 경우 정체성에 있어 국적 대비 종교(기독교인) 비율은 프랑스(90:8), 독일(70:23), 러시아(68:19) 순이었다. 이슬람 국가의 경우 파키스탄을 제외한 국적 대비 종교(무슬림) 비율은 팔레스타인(43:40), 레바논(36:28), 인도네시아(35:40) 순이었다.

무슬림에 대한 서구 국가의 인식, 기독교인에 대한 이슬람 국가의 인식도 대조를 이뤘다. 미국인 10명 중 5.7명이 무슬림에 대해 호감을 가진 반면, 터키는 10명 중 0.6명만이 기독교인에 대해 호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도네시아인 10명 중 5.2명이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우려는 서구 국가뿐 아니라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러시아의 경우 76%가 자국 내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해 우려했

다. 독일(73%), 영국(70%)도 비슷했다. 팔레스타인(78%), 레바논(73%) 등 이슬람 국가들도 서구 국가 못지않게 이슬람 극단주의를 경계했다.

퓨리서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9·11테러 10주년이 돼가지만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시각차는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퓨리서치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구와 중동, 아시아 14개 나라에서 각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소말리아 이슬람 반군, 아이들까지 병력 동원



소말리아 이슬람 반군 조직이 아이들까지 병력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연대네스티(AI)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현실을 고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슬람 반군 조직은 돈이나 비싼 물건 등을 갖고 유혹하거나 학교를 습격해 납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끌려 온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의 경우 전사로 훈련 받아 바로 전선에 투입되며, 여자 아이들은 요리, 빨래, 무기 운반 등의 노동을 하고 전사들과의 결혼을 강요받기도 한다.

아이들은 대부분이 12-18세지만 이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서는 피난민들의 증언을 인용했다. 엠네스티는 내전과 빈곤,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소말리아 아이들이 이제는 인권까지 침해당하고 있으며, 병력으로 동원되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이같은 행위를 강력히 비난했다.

소말리아 이슬람 반군 조직은 알 샤바브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알카에다 유관 단체로 미국 정부에 의해 지목된 바 있다. 소말리아 전역에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구와 기독교에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UCC 교단, '하늘에 계신 아버지' 표현 수정할 듯



미국 연합그리스도의교회(UCC)가 교단 헌법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Heavenly Father)'란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인 전망을 밝혔다.

UCC는 최근 열린 총회에서 이같은 개헌안을 613 대 16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

로 통과시켰다. 이는 "하나님의 특정 면만을 부각시키는 표현 대신 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밤 파벨 총회 대변인은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대신으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Triune God)'이란 표현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UCC 내 많은 교회들이 이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총회 대변인인 베넷 게스는 이 같은 변화는 그 어떤 신학적 변화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2013년 차기총회 전까지 38개 노회의 검토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이뤄질때 최종 승인될 계획이다.

CCC, "Cru" 로 이름 변경



국제복음주의선교회인 CCC(Campus Crusade for Christ)의 이름이 곧 Cru로 바뀔 예정이다. 그 주된 이유는 첫째, 선교회 이름에 포함된 'Crusade'가 역사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동 지역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CCCI 부총장인 스티브 셀러의 설명이다.

둘째, 'Campus'란 단어는 단체의 성격을 볼 때 시대에 뒤쳐진 이름이다. CCC는 1951년 빌 브라이트와 보브 브라이트가 캠퍼스선교회로 시작한 이후 1,029개 대학에서 37,900명의 영혼을 구원한 캠퍼스 중심의 선교회였다. 그러나 이후 CCC사역은 출판과 영화 배급으로 확대되었고, '캠퍼스'에 국한되지 않는 사역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에 따르면 CCC의 가장 주된 사업은 도서와 소책자 출판, 예수 영화 배급이다. 1979년 예수 영화는 현재 1,129개 언어로 번역됐고 60억 명이 본 최대 흥행 영화가 되었다. 브라이트가 쓴 사영리 책자는 25억 권이 출판되었고, 종교 소책자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이 되었다.

CCC의 트위터 태그인 Crunews처럼, 이미 몇 년 동안 사용해왔던 'Cru'라는 이름이 채택될 것을 듣고 CCC 멤버들은 기대가 커 보인다. 하지만 단체의 이름에서 Christ를 빼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 CCC측은 "Cru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를 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이다. Cru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 이전에 기독교적 이름으로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도 더 쉽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 핸드폰 빌려가세요 702.812.4770 Kim Wray. Includes details about phone rental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성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Includes address and contact info.

GRAND OPENING Hanna Flower Shop.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Includes address and phone number.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Toll Free 1-800-281-2123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Includes contact info.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Includes a form for subscription and contact details.

Christ for the Next Generation

제26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를

주제: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황 의 영 목사
SBM대표

신앙영웅 키우기(2)

3. 계승 -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의 막중한 책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신 34:9).

1)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다음세대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래서 모세의 사역을 이어갔다. 2)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고 백성들은 그의 말을 순종하였다. 리더십이 강화된 가운데 여호수아는 가나안땅을 차지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사2:6).

4. 단절 - 사명을 이어갈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여호수아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사 2:7-11)

1)여호수아는 마침내 가나안땅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완전히 정

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뼈저리는 교훈을 받는다.

5. 책임 - 다음세대를 철저히 대비하자.

“내가...에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복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전쟁에만 몰두한 까닭이다.

2)이스라엘백성들의 자녀들을 철저히 가르치지 않아서 오히려 우상문화에 동화되어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말았다. 그 이유는 다음세대를 이어갈 지도자들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큰 실책

을 드러내려하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후대에 전하리보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시78:3-8). 믿음을 지키도록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인물들을 양육할 책임

을 부여하고 있다.

1)지금 미주 안에는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신앙영웅을 누가 키우고 있는가? 2)한국교회는 얼마나 신앙의 영웅들이 자라나고 있는가? 3)크게 몰락해가는 유럽의 교회들은 누가 나서서 다시 살릴 것인가? 4)아프리카와 제3세계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5)교회성장의 모델이라고 자랑하는 메가 처치는 어떻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6. 위기 - 오늘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자.

물질문명이 극에 달한 현대인들의 정신상태(post modernism)는 모든 면에 일대 변혁을 보여주고 있다. 물질에 지배당한 부패한 정신이 영성을 흠미하게 하여 성경적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차츰 무너져가는 것이다. 그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교회의 기능이 상당부분 퇴색되어 점점 쇠퇴해가고 있다(겔 33:10). 2)성장이 둔화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3)신앙의 대가 차츰 끊어져가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다.

1)말씀의 토대가 빈약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다. 2)물질문명의 영향으로 구조적으로 세속화된 것이다. 3)말씀대로 사는 실천 훈련을 등한히 한 것이다.

8. 처방 -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자.

뜻 있는 영적지도자들이 오늘의 상황을 우려하며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매우 안타깝게 여겨서 SBM 본부가 이상적인 처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먼저 간단히 3대 목표를 제시해본다.

1)말씀의 신앙화-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철저히 다지도록 특별히 지도한다. 2)신앙의 생활화-품성과 인격, 변화된 삶을 위한 특수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3)생활의 문화화-정신문화, 의례문화, 생활문화 등 종합적인 기독교문화를 창달한다.

이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SBM 오늘의 교회진단과 처방”을 비롯하여 특수한 훈련교재를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활용하도록 준비하였다.

서 나오고 (2)주로 말미암고 (3)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롬 11:36)하고 기록된 말씀과 “...그러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후1:21)는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echo의 전체 과정을 체계화하여 말씀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3)해석-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예를 들면 생명, 호흡, 독생자, 성령, 성경, 믿음, 구원, 영생, 은사, 지혜, 재능, 양식, 물질, 모든 만물... 이런 사실을 바로 깨달아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수(보답)하는 삶이 요구된다. 예컨대 믿음, 회개, 거듭남, 순종, 변화, 감사, 예배, 기도, 찬양, 헌신, 봉사, 전도, 열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아멘의 신앙이 실현되도록 그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4)내용(octa Course)-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모두 4구간과 8코스로 나누어 이를 옥타코스(octa-Course)라고 부른다. 옥타란 뜻은 숫자 여덟을 말하고 계속해서 되풀이한다는 의미가 있다. 신앙생활훈련은 말씀 적용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향상이 함(spiral)을 강조하기도 한다.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구간: Echo의 진원과 파장(The origin & wave of Echo)

(1)Reality of God-하나님의 본체를 폭넓게 헤아린다. (2)Revelation from God-하나님의 계시와 그 내용을 이해한다.

둘째구간: Echo를 위한 반응(The touch & encounter for Echo)

(3)Receive the Word of God-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4)Response to the calling-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한다.

(다음호에 계속)

오늘의 위기 진단 철저히 하고 근본대안 마련 시급 교육은 학습...신앙생활훈련 효율성 높이는 이론개발

고 있어서 미래가 매우 염려된다.

7. 진단 -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자.

주기적으로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종합검진을 받듯이 왜 오늘의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구석구석 살펴봐야 한다. SBM(기독교생활개혁운동)본부에 진단자료가 비치되어 있다. 문제의

9. 학습이론 - 신앙생활훈련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돕는다.

효과적인 교육은 이상적인 학습이론에 의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기독교교육학이론을 개발하였다.

1)명칭-Echo-way Learning Theory -octa Course

2)원리-"이는 만물이 (1)주에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목사 : 송규식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gracewave.org Tel: (714)699-0210, 714-699-0210(Cell) 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usa.org Tel: (323)913-4498,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413-1600, (F) (213)413-1911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www.laopendoor.org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www.lapcc.org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5:45(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2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90019 (Pico&Fairfax)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영양): 오전 11:30 주일 4부(영양): 오전 11: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예배: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다우니제일교회 담임목사 : 이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교육부주일예배: 오전 11:00 Tel: (562)961-1004, Fax: (562)923-6705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저녁 8:0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선교에 대한 관심과 소명을 받은 선교회나 동역자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Tel: (213)210-6890 / Fax: (323)263-6102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 기도회 상담: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만남의교회 담임목사 : 박성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영양): 오전 11:30 주일 4부(영양): 오전 11:00 EM영양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hurchmannam.org Tel: (818)882-9191, Fax: (818)882-9777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영양): 오후 1:30 주일 4부(영양):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정병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15 주일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www.miloseaechurch.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방주선교회 담임목사 : 박동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교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대학부) 주일 4부예배: 오후 5: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5738 Marconi Ave., Carmichael, CA 95608 Tel: (916)482-8800, 4960, Fax: (916)482-5571 Web-site: www.arkmissionchurch.org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00(청년) 청, 장년영양예배: 오전 7:30 오전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2:3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www.lapcc.org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25 영양예배: 오후 1:30 Tel: (626)339-6177, Fax: (626)967-3078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www.samsungchurch.org Tel: (562)690-8800, Fax: (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 김재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영양): 오전 11:00 주일 4부(영양): 오전 11: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15(월, 금) Tel: (818)363-5887, Fax: (818)368-9883 18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영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83-8607 824 S. Venice Blvd., L.A., CA 90015	새창조교회 담임목사 : 정병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영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325-0501, Fax: (310)325-4282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샌디에고 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병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영양): 오전 11:30 주일 4부(영양):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Church: (858)571-5509 / home: (858)384-6546 2130 Ulric St., San Diego, CA 92111 myungki153@yahoo.com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운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영양): 오전 12:30(영양) 주일 4부(영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아침예배: 오전 6:30(월-금)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pc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한종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영양): 오전 11:30 주일 4부(영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5240,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엄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영양): 오전 11:45 영양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영양): 오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4)891-2029 / Fax: (714)879-3097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오렐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4272, Fax: (213)384-8638 634 S. Normandie Ave., L.A., CA 90005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영양): 오전 11:30 주일 4부(영양): 오후 2:00 금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은혜교회: 오전 3:55(월-토) 24시간 www.gccm.com Tel: (714)446-621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인랜드교회 담임목사 : 최병수 주일 1부: 오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주일 4부: 오후 1:30 영양예배: 오전 9:00, 10:30 www.inlandchurch.org Tel: (909)622-2324, Fax: (909)622-1480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영양): 오전 12:4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아침예배: 오전 6:3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pc.org	창대교회 담임목사 : 이춘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영양):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영양): 오전 11:3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6:0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www.gpc.com Tel: (909)388-2940, Fax: (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영양): 오전 11:3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ch.com / e-mail: pastor@cornestonch.com Tel: (310)330-4040(CH), Fax: (310)330-8400 2442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43. 성경적 세계관(2) : 7C의 역사

성경 역사에 비해 빅뱅이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우주의 역사(137억 년)는 무려 200만 배나 길다. 지구의 나이(46억 년)도 성경 역사보다 거의 76만 배나 길다. 아무리 타형을 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이런 갈등 때문에 실제 역사와 동떨어진 것 같은 성경을 믿으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성인 크리스천의 3분의1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나머지 대다수도 언젠가 한 번은 생각해 보았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묻어 둔 지가 오래 되어 갈등하고 있지 않을 뿐이 문 제가 성경을 신뢰하는 일에 보이지 않는 방해 요소가 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 과학자들이 우주의 나이나 지구의 나이를 알아내는 데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다. 그들이 나이를 측정하는 과정은 온도계로 온도를 재듯, 잘 맞는 시계로 시간을 재듯 간단하고 명료한 과정이 아니다.

그 과정에는 과학으로는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가정(들)이 숨겨져 있고 수학적인 계산이 들어 있다. 즉, 그 가정(들)이 사실일 경우에만 계산치가 사실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창조과학자들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 중에는 그 가정(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최근에 물리학자이며 창조과학자인 험프리(Humphreys) 박사는 성경적인 새 우주모형을 제시하였다. 빅뱅론자들이 137억 년을 얻은 계산과정과 마찬가지로 험프리 박사도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방정식의 답을 다 구하였다. 물론 험프리 박사의 모델은 성경이 사실이란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구했던 해답보다 간단하고 명료하였다.

또, 이 우주모형은 NASA의 과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 즉, 태양계 밖으로 나가는 우주선들의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도 설명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어떻게 우주 끝에서 지구까지 빛이 순식간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을 주고 있다. 우주의 역사는 길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낸 것이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역사를 맨

처음부터 성경에 기록하셨다. 그 역사의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이 C로 시작하는 7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7C의 역사): 창조(Creation), 범죄로 인한 타락(Corruption)의 시작, 타락이 가속된 노아홍수(Catastrophe), 바벨탑 사건(Confusion), 예수 그리스도(Christ)의 탄생과 십자가(Cross)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Consummation)되는 것이다.

이상의 사건들은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왜 복음이 필요한지와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준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사실성이 복음의 사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처음부터 성경에 기록된 주요 우주역사 7사건 창조, 타락, 격변, 혼잡, 그리스도, 십자가, 성취



1) 창조(Creation)는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3요소 가 공존하는 지구의 창조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시간, 공간, 물질의 창조자이심으로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자주 언급되는 기적들은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염두에 둔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창조적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즉 처음이 가장 좋았다.

2) 타락(Corruption)된 상태를 물질적으로 표현한다면 시스템이 고장이 난 상태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창조질서가 어긋나게 되었는데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형상(자녀)이 죽게 된 것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이 죽음과 더불어 고통과 아픔이 동반되었고, 주님을 위해 또 사람들을 위해 창조된 다른 피조물들도 모두 다 함께 고통을 겪게 되었다(롬 8:22). 모든 피조물들은 타락과 죽음의 물질법칙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죽음으로 향하는 경향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구원자는 창조주 외에는 없다.

3) 격변(Catastrophe)적인 노아홍수의 심판 사건으로 피조세계는 더욱 급격하게 타락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다. 수명이 900대에서 450대로 떨어질 정도였다. 물질적인 지구가 완전히 재편되어 사람이 살기에 더욱 열악한 지구가 되었다.

4) 혼잡(Confusion)한 상황은 바벨탑에서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였을 때 취해진 하나님의 조지였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말을 하게 되자 사람들은 한 곳에 살 수 없게 되었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인종과 민족과 나라로 쪼개져 서로 싸우면서 살게 되었다. 더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초기 인류의 역사에 대한 지식, 축적해두었던 지식, 등을 크게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어 인류의 삶이 더욱 더 고달프게 되었다.

5) 그리스도(Christ)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오신 것이다. 이 세상은 타락의 법칙에 따라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고, 더욱이 노아홍수의 격변과 바벨에서의 언어 혼잡으로 사람이 살기에 더욱 어려운 상태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가 오신 것이다. 피조물인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나 과학 기술도 쇠퇴와 죽음의 법칙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다. 오직 창조주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가 될 수 있다.

6) 십자가(Cross)는 그리스도가 사람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창조질서에 어긋나 있는 사람의 위치 즉 죄의 상태로 들어간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므로 그리스도가 한 번 죄인이 되어 항해를 받으신 것은 영원한 항해이고 영원한 대속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영원한 것이다.

7) 성취(Consummation)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에서 범죄와 타락으로 죽음의 상태로 떨어졌지만 그분을 100% 의지하는 사람들을 완벽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성경에 기록된 이 7C의 역사는 하나님의 증언으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의지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요한복음 3:11-12).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땅의 일(역사)을 통하여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확신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다음호에 계속)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뉴저지복음장로교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시9:10).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사고 쳐 코가 쪽 빠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권할 수없이 몰려드는 수치심과 두려움의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애타게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수치와 두려움의 죽음 앞에 서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시며 죽음의 벼랑 끝에서 돌이켜 내 손을 잡아라 할 수 있다고 계속 안타깝게 외치십니다. 하나 이미 저들의 ‘눈이 변하여’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선악 간에 판단하는 심판자의 공포의 대상으로 그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신뢰관계의 금이 가니 의심하고 밀어내고 도망치며 무화과 잎새 옷을 주시었고 그저 몰려드는 수치심과 공포심을 모면하기에 급급합니다.

오늘도 “너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인간이야...”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사방에서 몰려오는 “너는 부끄럽다”는, ‘네 인생은 민폐’라는 선악과의 찌르는 정죄의 소리를 듣는 한 아담과 하와가 빠진 공포의 지옥에서 빠져나올 길은 없습니다. 여전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습니다. 자신이 옳다 그르다 하는 선악의 잣대로 의심의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할 리가 없어 단정 짓고 마음을 닫으니 신뢰관계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저 마음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이런 깨진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셔도 좋은 소리로 들립니다. 모든 질문에 공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괴로운 그 자리만 벗어나려 안간힘을 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소리 듣고 내가 벗어나서 두려워 숨었다고 대답합니다. 그전에는 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벗은 것이 부끄럽게 느껴져 두려워 숨었다하니 누가 내게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알려주었나? 다시금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분명히 그런 아담도 기뻐하는 아들인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렇게 되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남자답게 실수를 인정하면 될 것을 한 술 더 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어 먹었노라고 여자에게, 나아가 하나님에게 책임전가를 함으로 자신이 불순종한 죄를 합리화하고 책임회피를 하는 못난 남자 아담의 모습입니다.

어찌보면 책임전가로 회피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성공한 듯 보였는지? 하와도 아담의 길을 따라 뱀이 나를 꼬므로 내가 먹었다고 뱀의 탓을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건만 그래도 하는 데가 튀는 불뿔을 피해보려 앞가리만 급급한 하와의 모습 가운데 요즘 세상의 우리에게서도 똑같은 문제해결방식을 보게 됩니다. 책임회피도 모자라 책임 전가로 빠져나가기에 올인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복들을 제 손으로 하나하나 저주의 상태인 마귀 닳은꼴인 죽음의 상태로 바꾸어내는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렇게 의심으로 시작해서 밀고 밀려나고 점점 아름다운 관계를 제 손으로 헐어내며 더 더욱 캄캄한 지옥의 나라를 향해 떨어지는 어리석은 죄인들이건만 이런 죄인들일지라도 개의치 않으시고 초심대로 초지일관 우리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니 죄의 나라에 깊이 떨어진 아이일수록 가슴이 아파서 아이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아이를 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죄없는 양을 죽여 그 가죽으로 손수 옷을 해 입혀 불안해 안절부절하는 저들을 가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죄인을 가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위에 내어주신 그 절박한 사랑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용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후 7:00 수 요 기도 회: 오후 7:30 새벽 기도 회: 오전 6:00 (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성섭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삼 일 기도 회: 오후 8:00(수) 새벽 기도 회: 주일 6:00 주일학교 예배: 오후 11:00 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 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2:00 금 요 기도 회: 오후 7:00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30 금 요 예배: 오후 8:00 목 요 기도 회: 오전 8:00 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종운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한국어) 주일 2부 예배: 오전 10:15(영어)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한국어) 주일 4부 예배: 오후 6: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 엘 교회 담임목사 : 전용태 주일 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부 예배: 오전 8: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전 1:45 EM 예배: 오전 10:00 수 요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 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 회: 오전 6:00 금 요 기도 회: 오후 8:00 대 학 청년 부: 오후 1:30 중등부: 매일 오전 10:00(한국어) 유치,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3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 이영섭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 예배: 오후 12:50 Tel: (410)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 정용교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 요 찬양 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후 11:00 Tel: (360)458-0191 6007 Pacific Ave., P.O. Box 8358, Lacey, WA 986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 요 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 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알칸사 레자들 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예배: 오전 4:00 수 요 예배: 오후 7:30 금 요 예배: 오후 8:00 수 요 찬양: 오전 6:00 (월-토) Tel: (501) 920-9049 / 새벽: (501)425-5178 600 Kirby Rd., Fayetteville, AR 72711 www.JEJAS.COM	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월 아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2:00 수 요 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2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스얼린문교회 담임목사 : 하태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새벽: (915)751-438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용걸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 예배: 오후 2:30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 요 기도 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 김성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6: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W.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30(영어)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 요 기도 회: 오후 8:00 새벽 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 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 요 찬양: 저녁 8:00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 나광삼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 요 예배: 오후 8:00 새벽 예배: 오전 5:30 매일 저녁 7시(금, 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 정대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 요 찬양: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0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 임규영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수 요 기도 회: 오전 11:30(영어) 주일 4부 예배: 오후 2:00(영어) Tel: (253)535-6207, 531-9424 Fax: (253)536-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수명 1부 영어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영어) 수 요 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www.hawachurch.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파장로교회 담임목사 : 윤정용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 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 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 예배: 오후 2:00(문어예배) 새벽 기도 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kpc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선만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2:00 수 요 예배: 오후 7:45 새벽 기도 회(월-금) 오전 5:30 (토)오전 6:00 Tel: (860) 643-4738 Fax: (860) 647-058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 이남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 요 찬양 예배: 오후 7:00 수 요 기도 회: 오전 5:30 (월-토) Tel: (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장현 주일영어예배: 오전 9:00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00 새벽 기도 회: 오전 5:30(월-토) Tel: (808)739-1004, Cell: (808)218-4592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 김순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00 새벽 기도 회: 오전 6:00(토) Tel: (808)277-2936, 557-1778, 542-2922 1531 S. Beretania St., Hon., HI 96814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영어) 주일 4부 예배: 오후 7:00 수 요 예배: 오후 7:00 금 요 기도 회: 오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